

##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김 나 래

이 기 학<sup>†</sup>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 200명(남 80명, 여 120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을 측정하였고,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측정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진로미결정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두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정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Freud가 행복의 조건으로 '일'과 '사랑'을 꼽았듯, 진로결정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청년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발달 과정상 진로선택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Super, 1980).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모델에 의하면, 진로결정은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필요성 인식 이후,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인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시기가 학교에서 일 장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임을 인식하지만, 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는 개인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진로에 있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불확실해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상태 혹은 진로결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4학년생 395명 대상의 설문 결과, 61.5%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이유로 47.7%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기업이나 직무 관련 정보가 거의 없어서(19.3%)', '관심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15.2%)' 등 다른 응답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이유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12).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6명이 적성, 흥미 등 자기명확성 부족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불확실한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진로미결정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의 문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김봉환, 김계현, 1995; Crites, 1981; 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미결정

은 정체감 위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압박감, 불안, 혼란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등 다른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박선희, 박현주, 2009).

이러한 진로결정은 주변 환경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주변과의 관계가 진로결정과 같은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사회 및 경제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류대학을 졸업해 소위 알아주는 직장을 다니며 풍족하게 사는 것 즉,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요소를 중요시 한다(이중환, 박은아, 2010). 이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인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을 상황과 맥락 안의 '사회적 자기'로 보는 비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Heuvel, Tellegen, & Koomen, 1992; Triandis, 1989). 이처럼 타인 및 집단의 생각, 느낌, 기대를 중시하고 이를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집단주의 문화에서(Suh, 2007)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hite & Lehman, 2005).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대학생들이 미국대학생들 보다 타인과 자신을 더 많이 비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은영, 2009). 특히, 경쟁지향적인 우리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인다(하정희, 2006). 이처럼 타인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Lyubomirsky & Ross, 1997),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진로 문제로 보고되고 있는 점(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을 반영할 때 대학생의 비교하는 성향은 진로결정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타인과의 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진로에 있어 명료하고 안정된 청사진을 가지지 못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개인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동기를 가지며, 이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사회비교연구는 주로 두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비교대상(상향, 유사, 하향)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비교동기(자기향상, 자기평가, 자기고양)가 달라진다는 관점이 있다(한덕웅, 1999; Heine & Lehman, 1999; White & Lehman, 2005).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교의 방향에 따라 삶의 질이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장은영, 2009). 반면 개인이 지니는 성향에 따라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 지에 주목하는 관점이 있다(Gibbons & Buunk, 1999; Gilbert, Giesler, & Morris, 1995). 본 연구는 후자의 관점에 맞추어 비교 경향성의 개인차를 반영한 빈도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개인성향을 Gibbons와 Buunk(1999)는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비교를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수행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Bandura & Jourden, 1991), 정도가 지나칠 때에는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 결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부정적 정서경험이

높고,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Lyubomirsky & Ross, 1997;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한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적 변인으로 연구되어온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존감은 진로미결정 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etz & Luzzo, 1996; Taylor & Betz, 1983).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과 직업적 역할을 명확히 지각하고 뚜렷한 직업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을 뒷받침 해준다(Super, 1983).

또한 Rosenberg(1965)는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 외부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ibbons & Buunk, 1999;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이는 낮은 자존감은 자기개념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함을 의미 하는데, 사회비교 경향성 또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Gibbons & Buunk, 1999). 즉, 본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확신을 갖고 긍정적으로 기대하지만,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자기와 타인을 빈번히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기개념을 갖는다. 이처럼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또한 낮은 자존감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야기한다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며(Marks & Gelder, 1966), 타인에게 부적절하게 보여서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불안이다(최정훈, 이정운, 199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높고, 완벽한 기준에 도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Deffenbacher, Zwemer, Whisman, Hill, & Sloan, 1986). 특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면, 그만큼 타인에게 얻는 정보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비합리적 신념을 비롯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하정희, 2006). 또한 사회비교는 자기비교가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의미하므로 사회비교를 하면 주의초점을 타인에 두게 되고,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민감성과 그로 인한 염려가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인상을 형성하려는 성향이 강하면서도(Nezlek & Leary, 2002) 성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며 걱정과 불안이 높다(Leitenberg, 1990). 따라서 높은 수준의 불안과 불안정성은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미루어 볼 때(이현주, 2008; Burka, 199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진로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당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진로미결정 상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미결정 뿐만 아니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 → 자존감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진로미결정이라는 경로를 예상한다. 사회불안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 혹은 수행 상황에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평가 받는 것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므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사회불안에 해당된다. 즉,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게 만들어 이러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으로서 사회비교 경향성과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Gibbons & Buunk, 1999;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또한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는 과제수행에 있어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심, 손정락, 2007; Brockner, 1979).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시선이나 타인들의 객관적인 평가에 예민해지는데 반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존중하고 삶의 과정에 더 많은 흥미를 느낀다(이경상, 조혜영, 2004). 선행 연구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연구모형1)과 연구모형1에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매개모형(연구모형2)을 설정하여 그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 할 수 있으며, 진로상담에 다양한 인지, 정서적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상담의 핵심변인이며,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유형을 밝히는 것은 진로상담 시 효율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박선희, 박현주, 2009). 즉,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진단 및 차별적 처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진로미결정자의 성격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김미자, 정남운, 2008). 따라서 단순 정보부족으로 인한 미결정이 아닌 사회비교 경향 성향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진로상담 장면에서의 개입전략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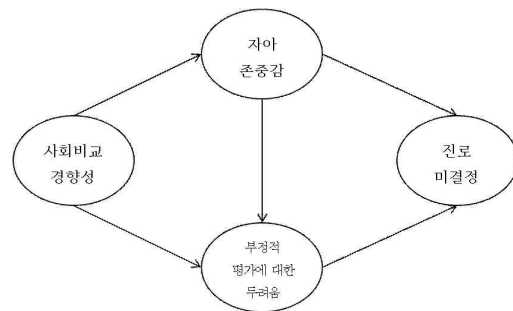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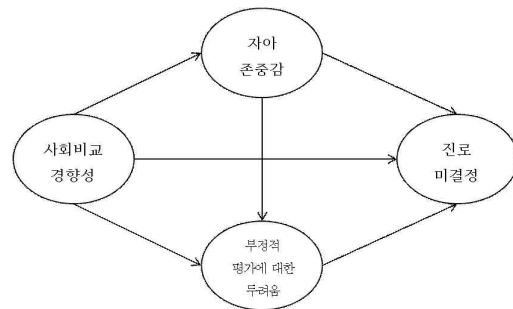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이는 진로미결정을 높일 것이다.

둘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며, 진로미결정을 높일 것이다.

셋째, 사회비교 경향성은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0명(남 80명, 여 120명)의 온라인 설문 결과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 연령은 21.41세( $SD=2.51$ )였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51명(25.5%), 2학년 51명(25.5%), 3학년 49명(24.5%), 4학년 49명(24.5%)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하게 되는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고, 전 과정은 학과연구실 의위원회(DRC)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 측정도구

#### 사회비교 경향성

사회비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bons와 Bunnk(1999)가 개발한 INCOM(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을 최윤희(200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능력(ability)과 의견(opinion)비교의 두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며, 각각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비교하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능력비교에 해당되는 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윤희(200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 이하  $\alpha$  계수)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능력비교 문항의  $\alpha$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INCOM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 잠재변수인 사회비교(능력) 경향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 그리고 Altmaier (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때 문항꾸러미를 설정하기 위해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고 각 꾸러미가 동일한 부하량을 가지도록 문항들을 두 개의 꾸러미로 배분하였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존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역시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을 위해 사회비교 경향성과 같은 방식으로 꾸러미를 제작하여 세 개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과 Friend(1969)가 30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Leary(1983)가 전체점수와 .50이상의 상관을 보인 문항을 뽑아 제작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Brief: Brief FNE)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0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단일 요인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을 위해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세 개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국내 대학생 표집을 이용하여 한국문화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진로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전체  $\alpha$ 계수는 .87이었으며, 하위요인별  $\alpha$ 계수는 .83(직업정보부족(6문항)), .88(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72(우유부단(4문항)), .62(필요성 인식부족(4문항)), .60(외적장애(4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alpha$ 계수는 .90으로, 하위요인별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8, .88, .79, .78, .78로 나타났다.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을 위해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 연구절차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후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와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가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 각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가 각각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적합도 평가를 위해  $\chi^2$ 와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1986)의 Z공식을 적용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규성을 표 1에,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로미결정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에 대해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정적상관( $r=.227, p<.01$ ;  $r=.363, p<.01$ ), 자아존중감이 부적상관( $r=-.460, p<.01$ ) 보였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비교 경향성,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미결정수준과 관련된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정적상관( $r=.639, p<.01$ ),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 $r=-.379, p<.01$ ) 보였다. 즉, 높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관련된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상관을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정규성

|                   | M     | SD    | 첨도   | 왜도   |
|-------------------|-------|-------|------|------|
| 1. 사회비교 경향성       | 21.48 | 3.67  | .44  | -.57 |
| 2. 자아존중감          | 30.20 | 5.29  | -.06 | -.48 |
|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42.76 | 8.17  | -.40 | -.29 |
| 4. 진로미결정          | 53.22 | 13.19 | -.63 | -.09 |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                   | 1. 사회비교 경향성 | 2. 자아존중감 |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4. 진로미결정 |
|-------------------|-------------|----------|-------------------|----------|
| 1. 사회비교 경향성       | -           |          |                   |          |
| 2. 자아존중감          | -.219**     | -        |                   |          |
| 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 .639**      | -.379**  | -                 |          |
| 4. 진로미결정          | .227**      | -.460**  | .363**            | -        |

\*\* $p < .01$ .

( $r = -.219$ ,  $p < .01$ ) 보였는데, 높은 수준의 사회비교 경향성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각 2와 4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사회비교 경향성,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Holmbeck(1997)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진로미결

정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하여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1과 이 모형에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연구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 1의 적합도( $\chi^2(60) = 113.043$ ,  $p < .001$ ; CFI = .957; TLI = .944; RMSEA = .067(90% CI: .047-.085))와 연구모형 2의 적합도( $\chi^2(59) = 113.033$ ,  $p < .001$ ; CFI = .957; TLI = .943; RMSEA = .068(90% CI: .049-.087))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경로가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계수들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 2에서



표 3. 연구모형 1, 2의 경로모형의 적합도

|        | $\chi^2$ | df | p    | CFI  | TLI  | RMSEA(90% CI)   |
|--------|----------|----|------|------|------|-----------------|
| 연구모형 1 | 113.043  | 60 | .000 | .957 | .944 | .067(.047-.085) |
| 연구모형 2 | 113.033  | 59 | .000 | .957 | .944 | .068(.049-.087) |

표 4.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 비교

| 모형     | 경로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표준 오차 |
|--------|-------------|-----------|----------|-------|
| 연구모형 1 | 자존감←비교경향    | -.195**   | -.278**  | .061  |
|        | 평가두려움←비교경향  | .903***   | .707***  | .115  |
|        | 평가두려움←자존감   | -.391***  | -.215*** | .117  |
|        | 진로미결정←자존감   | -1.243*** | -.497*** | .232  |
|        | 진로미결정←평가두려움 | .441***   | .320***  | .111  |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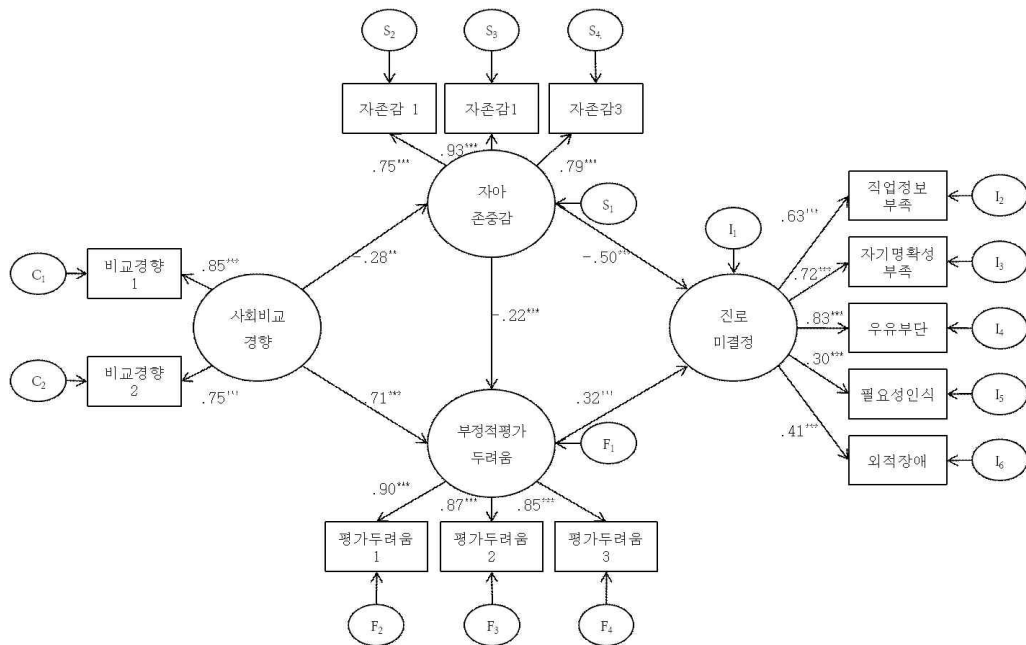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에 있어 부분 매개 모형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모형 모두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왔지만, 설명량,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간명성으로 고려해 볼 때 연구모형 1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연구모형 1의 경로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크기를 표 5에 제시하였고, 그림 3을 통해 연구모형 1의 모든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표준오차를 고려했을 때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임계치인  $\pm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

표 5. 연구모형 1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 모형     | 경로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전체효과  |
|--------|------------------------|-------|------|-------|
| 연구모형 1 | 자존감←비교경향               | -.278 |      | -.278 |
|        | 평가두려움←비교경향             | .707  | .60  | .767  |
|        | 평가두려움←자존감              | -.215 |      | -.215 |
|        | 진로미결정←자존감              | -.497 | -.69 | -.565 |
|        | 진로미결정←평가두려움            | .320  |      | .320  |
|        | 진로미결정←평가두려움←자아존중감←비교경향 |       | .384 | .384  |



\*\* $p < .01$ , \*\*\* $p < .001$ .

그림 3.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구조모형(연구모형 1)

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 1에 있어서 사회비교 경향성→자아존중감→진로미결정( $Z = 2.75$ ,  $p < .01$ ), 사회비교 경향성→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진로미결정( $Z = 3.55$ ,  $p < .01$ ), 자아존중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진로미결정( $Z = -2.56$ ,  $p < .01$ ), 사회비교 경향성→자아존중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진로미결정( $Z = 2.00$ ,  $p < .01$ ) 경로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비교 및 진로결정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Gibbons & Buunk, 1999;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타인과 비교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정적정서를 적게 경험하게 되고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삶에 대한 만족이 떨어진다(한덕웅, 1999). 결국 자신의 능력과 신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 해당되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직업

적 역할에 대해 뚜렷한 직업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1983)과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존감은 진로미결정 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etz & Luzzo, 1996; Taylor & Betz, 1983). 따라서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자기 가치감이 낮기 때문에, 진로영역에 있어서도 스스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진로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하여 결국 진로미결정을 야기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교 방향에 따른 자기평가에 있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향 비교하면 자기평가가 낮아지고 하향 비교하면 자기평가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Taylor, Wayment, & Carillo, 1993). 이를 통해 상향 비교 하는 것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빈도에 해당되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비교와 관련된 요소들이 주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과 관련된다는 기존연구(Gibbons & Buunk, 1999; Gilbert, Giesler, & Morris, 1995)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할 때,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이 높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불안을 경험하고 이를 두려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진로미결정과 불안과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Fuqua,

Seaworth, & Newman, 198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성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높고, 이는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은 관련성은 있었지만, 사회비교 경향성이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비교 경향성은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중요성과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변인에 해당되는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과제수행을 할 때에 외부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최명심, 손정락, 2007; Brockner, 197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 느끼며 자기불만·자기비하를 하는 경향으로 인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비교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진로관련 연구의 사회적 관계변인으로는 개인적 변인과

비교하였을 때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 사회적 관계변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수준,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사회비교 경향성은 개인적 변인으로써의 속성도 갖지만, 성장 과정에서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변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비교 경향성을 토대로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Lyubomirsky & Ross, 1997), 대학생은 진로결정이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비교 경향성은 직업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 타협이 쉽지 않은 요소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므로(Lyubomirsky & Ross, 1997; 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명성차원에 해당되는 사회 비교 경향성은 진로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하고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문화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 미국이나 서구권의 개인주의 문화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한 개인은 집단 내 타인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살아가는 개체로 간주된다(Triandis, 1989).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의 미국 대학생은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 타인과 비교하는 동기가 약한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한국 대학생은 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며 비교하는 동기를 높게 유지시키는 편이다(장은영, 2009). 따라서 타인과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이 개인의 진로결정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사회비교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비교 경향성이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비교 경향성을 가진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고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개입 초점을 맞추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 장면 및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시사해준다.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안정적인 성인기 발달을 위해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진로미결정 상태로 진로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경제, 2012). 진로 미결정 요인에 있어 내담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상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비교 경향성이 강할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진로미결정 상태를 야기한다. 단순히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식의 직접적 개입은 쉽지 않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그 효과 또한 불확실하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에게 본인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어떤 경로를 거쳐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지를 이해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타인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자존감을 낮추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결국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 진로상담을 실시하기 이전 개인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의 유형에 해당되어 선행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추후 합리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높이기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불안 조절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치료적 전략 수립은 사회비교 및 진로미결정으로 고민하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특정지역의 대학생을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따른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및 연령층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한 포괄적 연구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대학 1학년부터 4학년 까지를 모두 포함하였지만,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은 실질적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연구에는 가능하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학년 또는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척도는 자

기보고식 질문지로, 피험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방법을 보완하여 다각도의 측정방식을 추가해 실질적 행동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 연구를 토대로 매개변수로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였으나, 두 변인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로 이외의 다른 매개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비교 및 진로결정 이론과 연구를 확장하여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자존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사회비교 경향성, 자아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미결정의 구조적 관계에서 경로 및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및 학교 교육 및 진로 상담 장면에서 개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함 함의를 제안한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미자, 정남운 (2008).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대상욕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29-249
- 김봉환, 김계현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대학생

- 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95-1016.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은아 (2012.01.25.). 졸업앞둔 대학생 62%, “앞길 캄캄... 진로 모른다”. 한국경제. <http://hankyung.com/>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 연구소 (2008). 2007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서강상담연구, 1, 21-44.
- 이경상, 조혜영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II: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진로교육연구, 21(2), 109-125.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5.
- 이종한,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23-445.
- 이현주 (2008). 대학생의 사회불안, 진로결정장애,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진로교육연구, 21(2), 109-125.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 하정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사회비교 경향성, 비합리적 신념과 성취목표와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0(4), 785-805.
- 한덕웅 (1999).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과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 최명심,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51-967.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PA.
- Bandura, A., & Jourdan, E. J. (1991).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41-951.
- Betz, N. E., & Luzzo, D.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 Brockner, J. (1979). The effects of self-esteem, success-failure, and self-consciousness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732-1741.
- Burka, J. (1990).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Deffenbacher, J. L., Zwemer, W. A., Whisman, M. A., Hill, R. A., & Sloan, R. D. (1986). Irrational belief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281-29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uqua, D. R., Seaworth, T. B., &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75-186.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Gilbert, D. T., Giesler, R. B., & Morris, K. A. (1995). When comparisons ari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227-236.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eine, S. J., & Lehman, D. R.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uvel, H. V., Tellegen, G., & Koomen, W. (1992). Cultural differences in the us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children's self understand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4), 353-362.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rom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Leary, M. R. (1987).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Leitenberg, H. (1990).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Plenum Press.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141-1157.
- Marks, I. M., & Gelder, M. G. (196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2), 218-221.
- Nezlek, J. B., & Leary, M. R.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al motives and daily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211-22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 290-312.
-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ocial Methodology*, 16(1), 159-186.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Super, D. E. (1983). Assessment in career guidance: Toward truly developmental counseling. *Th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1(9), 555-56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aylor, A., Wayment, H. A., & Carillo, M. (1993).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Motivation & Cognition*. The Guilford Press.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Thousand Oaks, CA: Sage.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 White, J., Langer, E. J., Yariv, L., & Welch, J.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s: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1), 36-44.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7. 23.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7. 27.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Na-Rae Kim

Ki Hak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total of 200 university students (men=80, women=120) responded to the survey packet including measures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career indecision scale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career indecision have correlations. Second, The measurement model yielded evidence of good fit. Third, the analys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upported the indirect pathways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hich play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career indecision. High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low self-esteem then led to greater career indecision. High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hig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lso led to greater career indecision. Also, Low self-esteem led to hig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owever, the analyses of the structural model did not support the direct pathways from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o career indecision.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career indecision.